



(주)퍼시스

016800 | KOSPI | 사무가구 제조업

구분 : 정기주주총회 | 일시 : 2013. 03. 22 |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45-1

Executive Summary

▶ 퍼시스는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제30기 재무제표의 승인의 건과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 그리고 사내외 이사의 선임과 새로이 설치될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선임, 또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퍼시스의 관계회사인 시디즈, 일룸, 바로스 등과의 거래 관계 및 소유 관계 등을 고려하여 퍼시스 지배구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내이사 후보인 손동창과 서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안하며, 감사위원회위원 후보 가운데 손중배는 퍼시스의 지배주주인 손동창이 100% 소유하고 있는 바로스에서 고문으로 재직할 경력이 있으므로 감사위원회위원으로서 독립성을 확신할 수 없으므로 반대 의견을 제안한다.

Agenda & Recommendations

| No | 의안 | 이사회 | 네비스탁 |
|-----|-------------------|-----|------|
| 제1호 | 제3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제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 제3호 | 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
| 3-1 | 이사(상근) 후보 손동창 | 찬성 | 반대 |
| 3-2 | 이사(상근) 후보 서정 | 찬성 | 반대 |
| 3-3 | 사외이사 후보 김재필 | 찬성 | 찬성 |
| 3-4 | 사외이사 후보 고석 | 찬성 | 찬성 |
| 제4호 |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 | |
| 4-1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손중배 | 찬성 | 반대 |
| 4-2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김재필 | 찬성 | 찬성 |
| 4-3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고석 | 찬성 | 찬성 |
| 제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의안 세부 내역]

▶ 제1호 의안 : 제30기 (2012.01.01 ~ 201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퍼시스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제안하였다.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기존에 정관에서 감사에게 부여된 의무와 권한을 감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신규 조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정관 일부 변경을 통해 설치될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 41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제3호 의안 : 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 (상근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선임)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
| 상근이사 | 손동창 | 48.03.09 | 2 | 재선임 | (주)퍼시스 대표이사 | (주)퍼시스 이사 | 경기공업전문학교 |
| 상근이사 | 서정 | 68.09.30 | 2 | 신규선임 | (주)퍼시스 지방사업부 상무 | (주)퍼시스 지방사업부 상무 |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
| 사외이사 | 김재필 | 62.10.09 | 2 | 신규선임 | 오성회계법인 근무 | 오성회계법인 근무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 사외이사 | 고석 | 60.03.16 | 2 | 신규선임 | 법무법인 화우 근무 | 법무법인 화우 근무 | 육군사관학교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명 선임)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 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
| 감사위원 | 손중배 | 54.04.17 | 2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주)퍼시스 사외이사 | (주)퍼시스 사외이사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
| 감사위원 | 김재필 | 62.10.09 | 2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오성회계법인 근무 | 오성회계법인 근무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 감사위원 | 고석 | 60.03.16 | 2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법무법인 화우 근무 | 법무법인 화우 근무 | 육군사관학교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구분 | 전기 | 당기 |
|----------------|----------|----------|
|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 4 (1) | 7 (3) |
| 보수총액/최고한도액 | 한도액 30억원 | 한도액 30억원 |

Financial Profile

Business Description

▶ 사무가구 제조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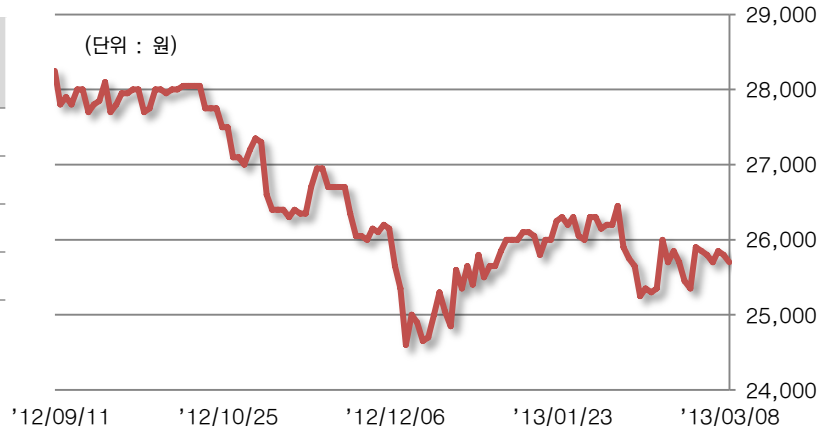
Company Snapshot

Industry : 내구소비재 > 사무가구

| | |
|---------------|-------------------|
| 시가총액 | 2,930억원 |
| 발행주식수 (보통/우선) | 11,500,000 / - |
| 의결권 있는 주식수 | 9,714,664 |
| 주가(액면가) | 25,700 원 (1,000원) |

기준일 : 2013.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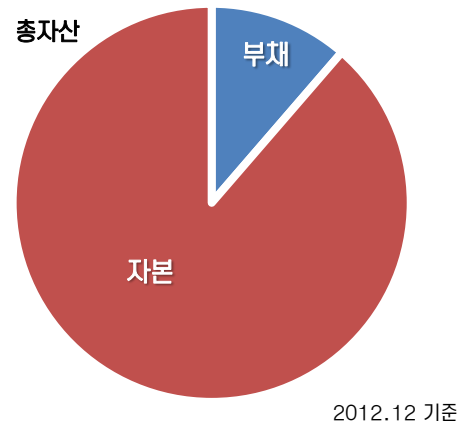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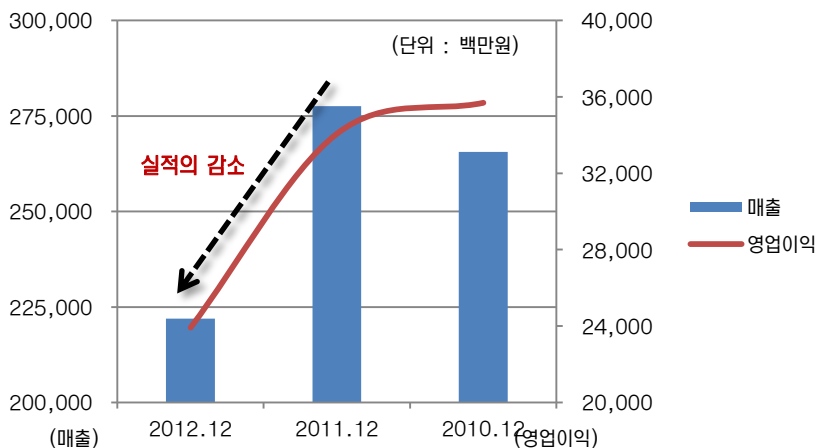
Stock Performance



Financial Highlight

| 구분 | 2012.12 | 2011.12 | 2010.12 |
|-------|---------|---------|---------|
| 자산총계 | 342,333 | 334,351 | 326,305 |
| 부채총계 | 38,827 | 52,553 | 63,187 |
| 자본총계 | 303,506 | 281,798 | 263,118 |
| 자본금 | 14,300 | 14,300 | 14,300 |
| 매출액 | 221,952 | 277,572 | 265,559 |
| 영업이익 | 23,916 | 34,075 | 35,695 |
| 당기순이익 | 30,522 | 34,671 | 32,040 |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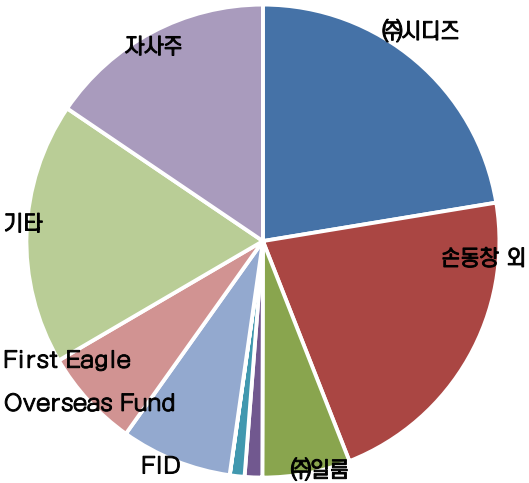


Governance Profile

Shareholders

| 주주 | 주식수 | 지분율 |
|---------------------------|-----------|-------|
| ㈜시디즈 | 2,804,901 | 22.40 |
| 손동창 외 | 2,489,193 | 21.64 |
| ㈜일룸 | 690,000 | 6.00 |
| 재단법인 목운재단 | 138,000 | 1.20 |
| ㈜바로스 | 115,000 | 1.00 |
| 우리사주조합 | 1,461 | 0.01 |
| First Eagle Overseas Fund | 872,463 | 7.59 |
| FID LOW PRICED | 774,994 | 6.74 |
| 자사주 | 1,785,336 | 15.52 |

손동창 외 = 손동창 + 친인척 + 임원
2012.9월말 기준



Board Profile

| 성명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재직기간 |
|-----|---------|---------|-------|--------------|--------------|------|
| 손동창 | 회장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 퍼시스 회장 | 28년 |
| 이종태 | 대표이사 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 퍼시스 사장 | 3년 |
| 박상근 | 부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 퍼시스 영업이사 | 12년 |
| 문규선 | 감사 | 등기임원 | 상근 | 전반적인 업무감사 | ㈜코스텔 이사 | 1년 |
| 최민영 | 감사 | 등기임원 | 상근 | 전반적인 업무감사 | 서림시스템 근무 | 2년 |
| 이명수 | 감사 | 등기임원 | 상근 | 전반적인 업무감사 | 범건축설계사무소 근무 | 2년 |
| 손중배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전반적인 업무 | - | 1년 |
| 배상돈 | 집행위원 | 미등기임원 | 상근 | 생산 | 퍼시스 생산이사 | 5년 |
| 서정 | 상무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지방사업부 | 퍼시스 지방사업부 이사 | 1년 |
| 박광호 | 상무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생산 | 퍼시스 생산이사 | 1년 |

2012.09.30 기준

[제1호 의안] 제3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전년 대비 자산은 약 80억원 증가하여 총 자산은 약 3,423억원 수준, 부채는 약 137억원 감소한 388억원 수준이며 이익잉여금 증가에 따라 자본 총계는 약 217억원 증가한 3,035억원 달성
- 매출은 약 2,22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56억원 감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53억원 감소하여 239억원 달성,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41억원 감소한 305억원 달성
- 매출원가율은 전년 대비 약 3% 증가했으나, 판관비율이 약 3% 감소하여 영업이익률은 전년과 유사한 10.8% 달성
- 배당은 전년과 동일한 주당 700원 배당
- 재무제표의 작성 및 배당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음

Vote Requirement : 참석주주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수의 승인

Discussion

Proposal

▶ 제3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구분 | 2012년 | 2011년 |
|-------------|----------------|----------------|
| 유동자산 | 195,181 | 109,651 |
| 비유동자산 | 147,152 | 224,700 |
| 자산총계 | 342,333 | 334,351 |
| 유동부채 | 26,374 | 42,693 |
| 비유동부채 | 12,453 | 9,860 |
| 부채총계 | 38,827 | 52,553 |
| 자본금 | 14,300 | 14,300 |
| 이익잉여금 | 298,852 | 275,539 |
| 자본총계 | 303,506 | 281,798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2년 | 2011년 |
|--------------|----------------|----------------|
| 매출 | 221,952 | 277,572 |
| 매출원가 | 157,557 | 189,635 |
| 매출총이익 | 64,395 | 87,937 |
| 판매비와관리비 | 40,479 | 58,737 |
| 영업이익 | 23,916 | 29,200 |
| 당기순이익 | 30,522 | 34,671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2년 | 2011년 |
|-------------|--------------|--------------|
| 현금배당 | 6,814 | 6,857 |

단위 : 백만원

주당 배당금 [2012년] 보통주 700원
[2011년] 보통주 700원

재무제표의 변화

▶ 자산 구성의 변화

퍼시스의 자산 총계는 전년 대비 약 80억원 가량 증가하여 전체 자산 규모는 약 3,423억원 수준이다. 자산 총계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세부적인 자산 구성에는 상당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구분 | 2012년 | 2011년 | 증감 |
|-------------|----------------|----------------|----------------|
| 유동자산 | 195,181 | 109,651 | 85,53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4,670 | 23,690 | 60,980 |
| 단기금융자산 | 79,142 | 39,594 | 39,548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4,232 | 25,310 | -11,078 |
| 비유동자산 | 147,152 | 224,700 | -77,548 |
| 매도가능금융자산 | 7,511 | 915 | 6,596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 | 82,755 | -82,755 |
| 자산총계 | 342,333 | 334,351 | 7,982 |
| 유동부채 | 26,374 | 42,693 | -16,319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0,091 | 31,820 | -11,729 |
| 당기법인세부채 | 3,509 | 6,129 | -2,620 |
| 기타유동부채 | 2,773 | 4,744 | -1,971 |
| 비유동부채 | 12,453 | 9,860 | 2,593 |
| 기타비유동부채 | 11,616 | 8,885 | 2,731 |
| 부채총계 | 38,827 | 52,553 | -13,726 |
| 자본금 | 14,300 | 14,300 | - |
| 이익잉여금 | 298,852 | 275,539 | 23,313 |
| 자본총계 | 303,506 | 281,798 | 21,708 |

단위 : 백만원

위의 표에서와 같이 현금및현금성자산, 그리고 단기금융자산 등 유동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비유동자산인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은 전부 매각된 것으로 보인다. 퍼시스의 2012년 반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퍼시스는 삼성덤섬프라임사모증권1, 삼성 CD Range알파사모증권1 등의 종속기업과 삼성코리아대표그룹70사모증권 제1호 등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2년 말 기준으로 이러한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을 전액 매각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자산 등 유동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퍼시스는 부채가 많지 않고 유형자산의 규모 역시 큰 변동이 없어 향후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자산 매각으로 확보한 유동자산의 용처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제표의 변화

▶ 매출의 변화

퍼시스는 2012년에 약 2,220억원의 매출에 239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약 556억원 가량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약 53억원, 당기순이익은 약 41억원 감소했다.

| 구분 | 2012년 | 2011년 | 증감 |
|---------------|--------------|--------------|---------|
| 매출 | 221,952 | 277,572 | -55,620 |
| 매출원가 | 157,557 | 189,635 | -32,078 |
| 매출총이익 | 64,395 | 87,937 | -23,542 |
| 매출총이익률 | 29.0% | 31.7% | |
| 판매비와관리비 | 40,479 | 58,737 | -18,258 |
| 영업이익 | 23,916 | 29,200 | -5,284 |
| 영업이익률 | 10.8% | 10.5% | |
| 기타영업수익 | 7,443 | 5,555 | 1,888 |
| 기타영업비용 | 707 | 680 | 27 |
| 금융수익 | 9,779 | 12,453 | -2,674 |
| 금융비용 | 817 | 899 | -82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9,614 | 45,629 | -6,015 |
| 당기순이익 | 30,522 | 34,671 | -4,149 |
| 당기순이익률 | 13.8% | 12.5% | |

단위 : 백만원

위의 표에서와 같이 2012년 매출은 2011년 대비해서 약 8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매출원가 상승으로 인해 매출대비 매출총이익도 31.7%에서 29%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10.8%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고, 당기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한 13.8%를 달성했다.

매출원가는 증가했으나 판매비와관리비가 감소하였고, 기타영업수익 및 금융수익 등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여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이 전년 대비 유사하거나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 배당

퍼시스는 전년과 동일하게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며, 현금배당 총액은 약 68억원 수준이다.

퍼시스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배당 등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제1호 의안인 재무제표의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제안한다.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감사 제도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일부 변경
-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대기업과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최대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찬성 의견을 제시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시 및 견제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에 두지만 이사회와는 별개로 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함

Vote Requirement :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 수의 승인

Discussion

Proposal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의 주된 내용

정관 변경 가운데 감사위원회의 설치로 인한 감사 제도 폐지에 따라 단순히 정관상의 문구가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라 정관 조항이 신설되거나 삭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의 목적 |
|-------------------|--|------------------------------------|
| (신설) | 제 30조의 2[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신규조항 |
| 신설) | 제 39조의 2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신규 조항 |
| 제 41조의2 [감사] (생략) | 제 41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감사규정 삭제 및 감사위원회 규정 신설 |

감사위원회의 설치

▶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 설치로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

상법 제542조의 10(상근감사)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012년 9월말 기준 퍼시스의 상근감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성명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 경력 | 재직기간 |
|-----|----|---------|-------|---------------|-------------|------|
| 문규선 | 감사 | 등기임원 | 상근 | 전반적인 업무 감사 | (주)코스텔 이사 | 1년 |
| 최민영 | | | | | 서림시스템 근무 | 2년 |
| 이명수 | | | | | 범건축설계사무소 근무 | 2년 |

외형적으로 보면 퍼시스는 상근감사는 3명이나 두어 이사의 직무 집행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사의 주요 활동 내역은 상당히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 감사의 주요 활동 내역 |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2010.2.4 | 제27기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 | 가결 |
| 2010.3.11 | 내부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 가결 |
| 2011.2.1 | 제28기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 | 가결 |
| 2011.3.10 | 내부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 가결 |
| 2012.2.3 | 제29기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 | 가결 |
| 2012.3.8 | 내부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 가결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말까지 퍼시스가 상근감사 3명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은 1억 9천 6백만원에 달한다. 9개월 동안 1인당 6천 5백 6십만원의 보수를 받아간 것이다.

퍼시스 감사 기능의 더 큰 문제는 현재 선임되어 있는 3명의 감사 모두 과거 퍼시스에 재직한 바 있는 임직원이었다는 사실이다. 2012년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문규선 감사는 2000년부터 2008년 2월까지 퍼시스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그리고 2010년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최민영, 이명수 감사는 2009년 9월말 분기보고서를 통해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각각 퍼시스의 전산이사과 영업이사를 맡아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최민영 감사는 퍼시스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손동창이 100% 지배하고 있는 (주)바로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2007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재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퍼시스의 현재 상근감사 3명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사의 직무 집행을 올바르게 감시하고 견제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그러므로 상근감사보다 한층 강화된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감사 기능 강화를 강화하고 이사회를 감시/견제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에 찬성의 의견을 제시한다. 단,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기업과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감사위원회의 취지에 걸맞게 중립적 입장에서 이사회를 감시 및 견제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제3호 의안] 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일부 반대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을 제안함.

- 퍼시스와 관계회사 간의 빈번한 거래를 고려했을 때, 회사의 사업기회 상실 등 자원 배분 및 의사 결정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동창 상근이사 후보자의 재선임과 서정 상근이사 후보자의 신규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견 제시
-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시 등을 통해 밝힌 각 후보자의 주요 경력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아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지만 경영진의 추천을 존중하여 찬성 의견을 제안 (주후 구체적인 정보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해당 의안에 대한 의견은 변경 될 수 있음)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이사회가 추천한 사외이사만으로 사외이사 기능을 유지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투명한 경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통한 중립적 사외이사의 보강을 제안

Vote Requirement : 참석주주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수의 승인

Discussion

Proposal

▶ 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후보자 세부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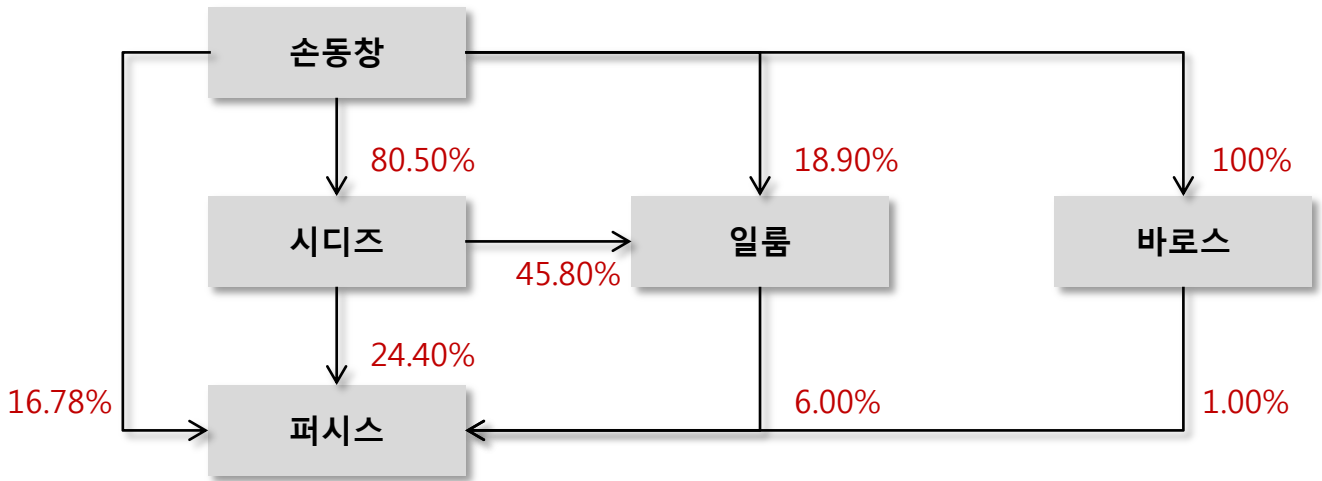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
| 상근이사 | 손동창 | 48.03.09 | 2 | 재선임 | (주)퍼시스 대표이사 | (주)퍼시스 이사 | 경기공업전문학교 |
| 상근이사 | 서정 | 68.09.30 | 2 | 신규선임 | (주)퍼시스 지방사업부 상무 | (주)퍼시스 지방사업부 상무 |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
| 사외이사 | 김재필 | 62.10.09 | 2 | 신규선임 | 오성회계법인 근무 | 오성회계법인 근무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 사외이사 | 고석 | 60.03.16 | 2 | 신규선임 | 법무법인 화우 근무 | 법무법인 화우 근무 | 육군사관학교 |

Analysis

손동창 중심의 퍼시스 그룹의 지배구조

▶ 퍼시스와 관계사들의 빈번한 매출/매입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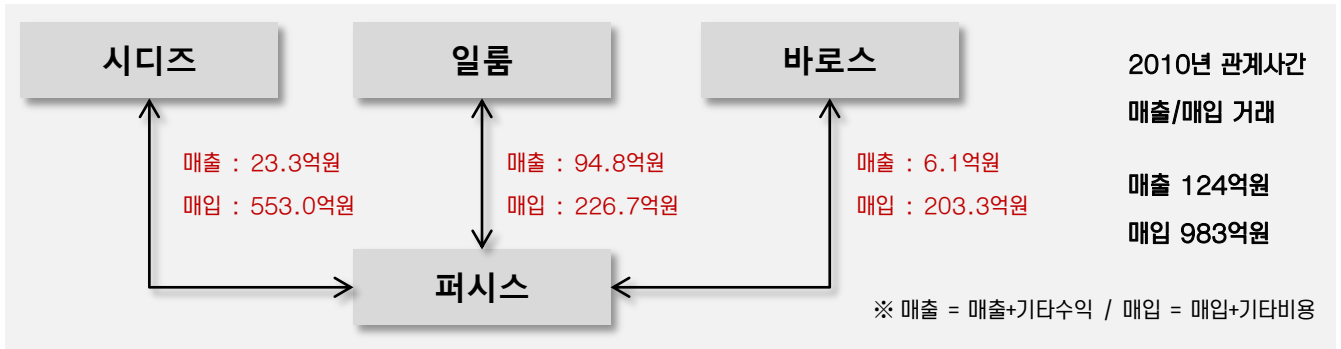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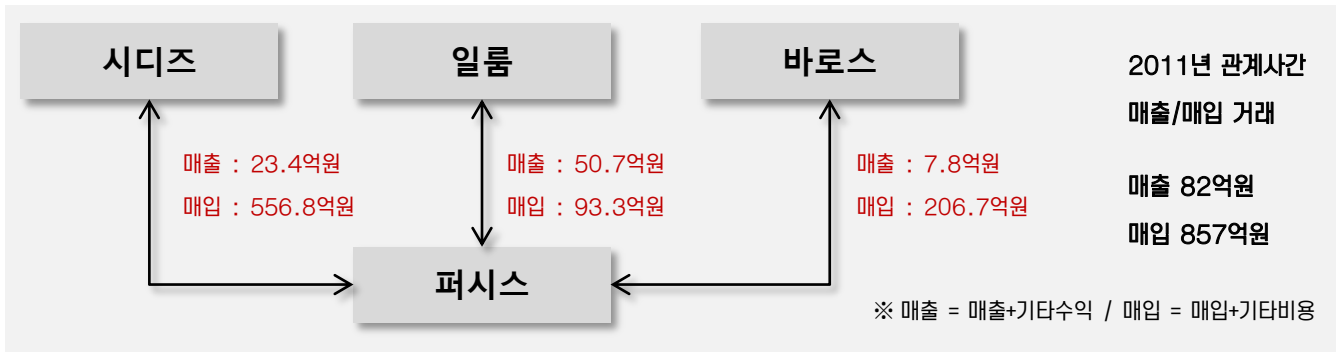
퍼시스 그룹은 시디즈, 일룸, 바로스 등의 관계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상장기업은 퍼시스가 유일하며, 기업 외형 역시 퍼시스가 가장 크다. 하지만 지배구조에 있어서 퍼시스는 관계회사인 시디즈, 일룸, 바로스 등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퍼시스 그룹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다.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퍼시스와 관계사들의 관계는 관계사가 퍼시스를 지배하는 구조이며, 이들 관계사는 직간접적으로 손동창 회장의 지배를 받고 있다. 퍼시스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2012년 9월 30일 기준으로 손동창 회장 및 손동창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 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손동창 회장이 대표자로 있는 재단법인 목운재단, 그리고 임원들을 포함해 약 54.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퍼시스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시디즈는 사무용 가구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일룸은 가정용 가구의 판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스는 퍼시스 그룹의 물류, 시공, A/S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즉, 퍼시스와 그 관계회사들은 주요 사업 부문이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들 관계사들은 상당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퍼시스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성명 | 직위 | 등기여부 | 상근 | 담당업무 | 비고 |
|-----|---------|------|-----|-----------|--|
| 손동창 | 회장 | 등기 | 상근 | 경영총괄 | |
| 이종태 | 대표이사 사장 | 등기 | 상근 | 경영총괄 | |
| 박상근 | 부사장 | 등기 | 상근 | 경영총괄 | 시디즈 감사(2001~2009) 일룸 감사(2008~2011) 바로스 감사(2001~2010) |
| 문규선 | 감사 | 등기 | 상근 | 전반적인 업무감사 | |
| 최민영 | 감사 | 등기 | 상근 | 전반적인 업무감사 | 바로스 이사(2007~2009) |
| 이명수 | 감사 | 등기 | 상근 | 전반적인 업무감사 | |
| 손중배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전반적인 업무 | 바로스 고문 |
| 배상돈 | 집행위원 | 미등기 | 상근 | 생산 | 시디즈 사내이사(2012~) 일룸 사내이사(2012~) 바로스 사내이사(2010~2011) |
| 서정 | 상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지방사업부 | 일룸 사내이사(2012) |
| 박광호 | 상무이사 | 미등기 | 상근 | 생산 | 시디즈 감사(2012~) 일룸 감사(2012~) 바로스 감사(2012~) |

앞의 그림에서와 같이 퍼시스는 관계사인 시디즈, 일룸, 바로스 등과 상당한 매출/매입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거래 비중을 봤을 때 퍼시스가 관계사에 매출하는 것보다 퍼시스가 관계사로부터 매입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사업적 유관성에 따라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적절한 시장 가격에 따라 거래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이들 관계사들이 손동창 회장이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계사들과 퍼시스 간의 거래에 있어서 퍼시스의 사업 기회를 유용하거나 거래 관계가 왜곡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위의 임원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퍼시스의 임원 구성이 관계사인 시디즈, 일룸, 바로스의 전현직 임원 구성과 상당 부분 중첩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손동창 회장의 등기이사 재선임과 서정 이사의 등기이사 신규선임은 퍼시스의 올바른 자원과 이익의 배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추가로 투명한 지배구조 확충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경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주주와 무관한 중립적 사외이사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중립적 사외이사의 보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퍼시스는 손동창 회장이 직접 지배하고 있는 관계사들과 빈번한 매출/매입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퍼시스의 주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립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립적 사외이사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퍼시스는 금번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2명의 신규선임을 의안으로 상정하였다.

이사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자 김재필과 고석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경력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보가 제한되어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지만 이사회의 추천을 존중하여 찬성의 의견을 제안한다. 참고로 사외이사 후보자 고석은 과거 2002년 국방부 법무과장 재직 시절 당시 이회창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공무상 기밀누설, 증거인멸, 위증 등의 혐의로 참여연대에 의해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된 바 있으며, 2010년 해당 병역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로서 일부 승소 판결은 받은 바 있다.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일부 반대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을 제안함.

- 손중배 후보자는 퍼시스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손동창이 100% 소유하고 있는 (주)바로스의 고문으로 재직할 수 있으므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반대 의견 제시
- 김재필, 고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경력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보가 제한되어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나 이사회의 추천을 존중하여 찬성 의견 제시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이사회가 추천한 감사위원회위원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독립적 감사위원회위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Vote Requirement : 참석주주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수의 승인

Discussion

Proposal

▶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위원 후보자 세부 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 여부 | 사외이사 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
| 손중배 | 54.04.17 | 2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주)퍼시스 사외이사 | (주)퍼시스 사외이사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 김재필 | 62.10.09 | | | | 오성회계법인 근무 | 오성회계법인 근무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 고석 | 60.03.16 | | | | 법무법인 화우 근무 | 법무법인 화우 근무 | 육사 졸업 |

Analysis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구성

▶ 손중배 감사위원회위원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

앞서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퍼시스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 상근감사의 독립성 및 독립성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보다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이사회를 올바르게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퍼시스의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현재 퍼시스 이사회가 제안한 감사위원회 구성은 총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김재필, 고석 후보자는 앞서 제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서 이사회의 제안을 존중해 찬성의 의견을 밝힌 바 있으므로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사회의 제안을 존중해 찬성의 의견을 제시한다.

하지만 손중배 감사위원회위원 후보는 과거 ㈜바로스에서 고문으로 재직한 바 있으므로 퍼시스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그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반대의 의견을 제시한다. 손중배 사외이사는 2012년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는데 당시 주주총회소집결의를 통해 밝힌 손중배 후보자의 주요 경력은 ㈜바로스의 고문이었다. 그런데 ㈜바로스는 앞서 제3호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퍼시스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인 손동창이 100%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며 퍼시스와 상당한 매출/매입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손중배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

퍼시스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가 아님에도 금번 정관 변경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퍼시스는 실질적인 지배주주인 손동창이 직접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 시디즈, 일룸, 바로스 등과 상당히 밀접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감사 기능 및 사외이사 기능이 적절히 작동했는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기존 상근감사 3인이 과거 퍼시스 및 퍼시스의 관계회사에서 재직한 바 있으며, 유일한 사외이사였던 손중배 역시 관계회사인 ㈜바로스에서 고문으로 재직할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이사회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손중배를 제외한 김재필, 고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제안을 존중해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이사회가 추천한 감사위원회위원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감사위원회가 활동함에 있어서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중립적 감사위원회위원을 보강할 것을 제안한다.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 퍼시스의 이사 총수는 전년에 4명(사외이사 1명 포함)에서 7명(사외이사 3명 포함)으로 증가할 예정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이지만 보수총액의 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30억원으로 동일
- 퍼시스의 이사 보수한도는 최근 3사업연도 연속하여 30억원 수준이며, 실제로 집행된 보수는 약 10억원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으므로 찬성의 의견을 제시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개별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나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보수의 책정과 지급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

Vote Requirement : 참석주주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수의 승인

Discussion

Proposal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구분 | 전기 | 당기 |
|----------------|----------|----------|
|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 4 (1) | 7 (3) |
| 보수총액/최고한도액 | 한도액 30억원 | 한도액 30억원 |

Analysis

이사 보수 지급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필요

▶ 이사 보수 지급 체계의 불투명

퍼시스의 최근 사업연도의 이사 수와 보수한도액, 그리고 실제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
|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 6 (2) | 6 (2) | 4 (1) | 7 (3) |
| 보수총액/최고한도액 | 한도액 30억원 | 한도액 30억원 | 한도액 30억원 | 한도액 30억원 |
| 실제 지급액 (단위:천원) | 1,466,417 (감사 2명 포함) | 1,175,500 | 594,000 (9월말 기준) | (예정) |

위의 표에서와 같이 보수 한도액과 실제 지급액이 최근 사업연도에 걸쳐 큰 변화가 없으므로 금번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제안한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제안한다. 다만 임원의 보수는 주주가 임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므로 개별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와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네비스탁의 독립적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의견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의 권고 및 신용평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의 내용은 네비스탁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네비스탁이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네비스탁은 본 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자료, 정보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를 포함한 네비스탁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네비스탁의 소유입니다.

㈜네비스탁

www.navistock.com